

목포시 예산 1조원 시대 다시 한번... 경제 활성화 '중점'

올해 보다 6.72% 증가한 9499억원 편성... 다음달 19일 확정 청년 일자리 만들기·초중고 무상급식 지원·관광 거점 육성 등

목포시가 2023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7% 증가한 9499억원으로 편성해 예산 1조원 시대를 다시 연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6.72%가 많은 598억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529억원(6.56%) 증가한 8594억원, 특별회계는 69억원(8.29%) 증가한 905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내년 예산은 전국체전 준비 등 현안사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구성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분야별로는 보편적 복지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

복지 부문은 기초연금(694억원), 장애인연금(85억원), 아동수당(131억원), 부모급여(79억원) 등 3884억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의 45.2%를 차지한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135억원), 공공근로사업(49억원),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44억원), 4차산업 활용 청년 창업 사업 지원(10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원사업(8억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8억), 사회적기업 육성(7억원), 목포형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

(5억원) 등이 편성됐다. 교육부문은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73억원), 친환경 식재료 지원(64억원), 초·중·고등학생 100원버스(20억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급식 지원(8억원), 목포시 스마트인재교육센터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5억원) 등을 편성해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해상게이블기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인프라 토대 마련을 위해 춤추는 바다 분수 기능 개선(45억원)을 포함한 관광 거점도시 육성사업(118억원), 문화도시 조성사업(30억원), 용해 생태체험시설 조성(14억원) 등을 반영했다.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소방) 도로 개설(53억원), 2023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수

립 용역(15억원), 자전거도로 정비(14억원), 실내 체육관-삼향동주민센터 간 위협도로 구조개선(2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노후 상수관망 정비(76억원), 남악하수처리 시설 증설(13억원)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33억원), 연산지구 및 산정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18억원), 해안로배수펌프장 수증펌프 교체(10억원) 등 재해예방 개선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지역 상권회복,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및 불편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60억원), 목포사랑상품권 발행(39억원), 공영주차장 조성(25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 밖에 2023년 전국체전 대비 목포종합경기장

신축(102억원), 목포실내수영장 개보수(55억원) 등 경기장 확충을 위한 예산을 필두로 여촌뉴딜 300사업(45억원), 제4차도서종합개발(42억원),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32억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15억원),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형 전원공급시스템 개발사업(6억원) 등 현안사업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 정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출된 2023년도 본예산안은 오는 30일 목포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의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달 19일 최종 확정된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물 위를 걷는 듯 짜릿... 해남 땅끝탑 스카이워크



해남군이 새로 단장한 해남 땅끝탑 스카이워크가 위용을 드러냈다.

〈해남군 제공〉

탑에서 바다로 18m 돌출... 시작과 끝 '공존' 의미 담아

"땅끝 바다 위를 거닌다" 해남군은 한반도 최남단 땅끝탑에 땅끝바다와 하늘을 향해 활짝 열린 스카이워크가 조성됐다고 밝혔다. 땅끝탑은 북위 34도 17분 38초 한반도의 땅끝지점에 우뚝 솟은 세모꼴의 기념탑이다. 군은 땅끝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을 통해 땅끝탑 앞 전망대를 바닥의 일부가 유리로 된 스카이워크 리모델링했다. 높이 9m, 길이 18m 땅끝탑 스카이워크는 '땅끝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주제로 한반도의

시작이자 끝을 의미하는 알파와 오메가의 기호를 디자인 컨셉으로 제작됐다. 스카이워크에 올라서면 육지방향으로는 땅끝탑과 포토존이 서있고, 해안방향으로는 아름다운 땅끝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특히 바닥의 일부를 투명한 강화유리로 제작해 땅끝바다 위를 직접 걸어보는 스릴을 맛볼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0년 설계에 착수, 여러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치고 공법심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망대를 설계, 2021년 12월에 착공 1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료했다.

명원관 군수는 "땅끝탑은 땅끝관광지를 찾는 이들이 꼭 한번 둘러보는 우리나라 최남단의 지점으로, 땅끝탑과 함께 스카이워크를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땅끝관광지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땅끝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되어 또하나의 의미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땅끝탑은 땅끝마을 갈두산에 위치한 땅끝전망대에서 데크길을 통해 아래쪽으로 500여m를 내려오면 만날 수 있다. 모노레일 탑승장에서 바로 이어지는 걷기길도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 어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해남군이 보급하고 있는 친환경 부표.

미세플라스틱 주범으로 꼽혀 전국 첫 친환경 부표 지원을 80% 어가에 올 110만여개 보급

해남군이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 제로(zero)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어장관리비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울해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신규로 설치할 수 없게 됐으며 내년 11월 31일부터는 모든 어장으로 확대된다. 해남군은 어업분야 ESG 실천을 위해 2024년까지 친환경 부표 보급률 100%를 달성하겠다는 목

표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친환경 부표는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환경 유해성, 내충격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 스티로폼 알갱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인조 부표이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 110억원 사업비를 확보해 올해 친환경부표 110만여개를 보급한다.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친환경 부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군비 보조율을 높여 교체 비용의 총 80%까지 지원을 실시하면서 어업인 부담을 20%까지 낮췄다. 친환경 부표 지원율을 80%까지 높인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올해 110만개를 포함해 지금까지 200여만개의 친환경 부표가 보급된 상황으로, 군은 내년 사업비 확보에도 전력을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신안 비금 영농 자재센터 오픈

신안 비금농협이 18일 영농 자재센터를 준공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자재를 영농인들에게 공급한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우량 군수와 권오연 신안군의회부위원장, 고영인 농협목포신안신안지부장, 지역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영농자재센터는 300평 규모의 창고형 매장으로 20억원을 들여 신축하고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철물자재와 비료, 농약 등 각종 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에 따라 영농인들은 영농자재 구매 시 목포와 인근 도시에 가지 않고도 시간적, 경제적 등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한편, 비금농협은 올해 선택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유기질 퇴비 무상 지원과 살충제 교육을 비롯해 벼 재배 농가에 환경 친화형 개량물꼬를 통해 노동력과 쌀 생산비 절감 등의 사업을 꾸준히 펼쳐왔다. 최승영 신안 비금농협 조합장은 "영농자재센터는 우리 지역 농업 발전과 함께 구매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언제든지 필요한 영농자재를 신청할 경우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성선 기자 sslee@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기자 노트

신안 해묵은 자원, 세계 관광지로 도래하는가



이상선 서부취재본부 부국장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방치' 또는 '무능력'이라고 한다. 반대로 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잘 활용한다면 이를 두고 '창의적이다' 혹은, 조금 더 강조하면 '혁신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자가 이같이 운을 띄우는 이유는 "해묵은 자원을 잘 활용하면 관광 명소 만들기에 손색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작해 성과를 내는 신안군의 섬 활용 관광지 조성사업을 빚낸 표현으로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아보면 신안군이 이처럼 '확신'할 만 가지 이유가 이미 있었다. 신안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우수한 갯벌과 국가 지정문화재인 신안해저유물 매장해역과 칠발도 바닷새류, 거제도 섬등반도, 김환기 고택 등 7곳과 장산도 들노래와 도장리 고분, 지도항교 등 전라남도 문화재 지정도 20건이나 된다. 이외에도 등록문화재는 7건이 있다. 풍부한 자연 자원과 각종 문화재, 세계유산 등 관광지 조성을 위한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때문에 이를 파악해낸 박우량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자세가 확실히 남달랐다는 것이 돋보인다. 군은 이런 자원에 '놀라운' 아이디어를 붙이고 1도1뮤지엄, 1섬1정원, 세계 최대의 섬 국가정

원, 문화-예술 사업까지 무난하게 펼치면서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각 지역 특색에 따라 창의적인 경관을 조성하면서 세계 언론의 찬사를 받는 곳도 여러 생겨났다. 대표적인 곳이 세계 최우수마을 선정, 한국 관광의 별 본산, 최근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대상인 대통령상 등을 받은 퍼플섬이다. 이곳이 반월-박지도라는 100여명이 사는 외딴 섬이었다는 것을 알면 더욱 놀랄 것이다. "이 섬에는 보라색인 도라지 꽃밖에 없다"는 주민들의 하소연에 군이 보랏빛 경관이라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태면서 연중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를 만들었다. 이처럼 묵혀둔 자연과 주어진 자산에 창의와 창조적인 특별한 아이디어를 더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신안군이 증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양수산부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 공모'에 우수한 평가를 받고 국내 두 번째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 보전을 위한 '국립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를 유치하는 성과를 이뤘다. 묵혀 있는 자원을 확신과 자신감으로 관광명소로 만들어낸 뜨는 섬 신안, 군이 추진하는 '세계 최대의 섬 국가정원 조성사업'도 기대가 크다. /sslee@kwangju.co.kr

남악신도시에 18홀 파크골프장 개장



김산 무안군수가 지난 17일 남악 파크골프장 준공식에서 시타를 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남악신도시 일원에 파크골프장이 개장했다. 무안군에 따르면 총 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7월 착공한 남악 파크골프장은 1만8802㎡ 면적에 18홀 코스(A코스 9홀, B코스 9홀)와 사용자들의 휴식을 위한 쉼터 공간으로 이뤄졌다. 군은 남악파크골프장이 지역주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기는 자연공원과 다양한 생활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건강증진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준공식에는 김산 무안군수, 김경현 무안군의회 의장, 나광국 전남도의원, 군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파크골프장 준공을 시작으로 오는 2024년까지 남악신도시 일원에 수영장, 웨이크보드 등 다목적 체육관을 조성하고 오룡지구 일원에는 축구장, 농구장 등 종합스포츠 공원을 조성해 주민들 삶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영광군, 국가대표 제2선수촌 유치 시동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

영광군이 국가대표 제2선수촌 유치에 나섰다. 제2선수촌 유치사업은 2022 전남체육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전남도 유치사업 중 하나로 제시된 바 있다. 영광군은 타 시군보다 먼저 구체적인 유치 계획을 수립해 국가대표 제2선수촌을 유치할 수 있도

록 타당성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국가대표를 육성하기 위한 선수촌은 현재 충북 진천군에 자리하고 있다. 최근 용역 착수 보고회를 통해 선수촌 유치 추진의 강점, 유치 기본계획, 기대효과 등을 보고했다. 영광군은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안 사항을 반영해 국가대표 제2선수촌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